

# 대학생용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신윤정<sup>1</sup>, 김은하<sup>2\*</sup>, 이은설<sup>3</sup>

<sup>1</sup>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아주대학교 심리학과, <sup>3</sup>세종대학교 교육학과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version of Classism Attitude Scale(K-CAS) for College Students

Yun-Jeong Shin<sup>1</sup>, Eunha Kim<sup>2\*</sup>, Eun Sul Lee<sup>3</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Education, Sej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측정하는 한국판 대학생용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관련 문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지 자료를 수정된 합리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주요 구인과 초기예비문항을 제작한 후 4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연구 1에서 도출된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의 2개 요인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높은 수준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더불어, 연령,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부정 정서(우울, 불안), 적대감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통해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 주관적 계층, 가정의 총수입,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 믿음 외에 K-CAS가 추가적으로 부정 정서(우울, 불안) 변량의 5%를 설명하여 증분타당도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계층차별주의 관련 개입 및 예방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시사점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Classism Attitude Scale for college students (K-CAS) that measures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socioeconomic class(SES). In study 1, preliminary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reviewing classism related theories and literatures, analyzing qualitative data by using Consensus Qualitative Method-modified(CQR-M) and getting experts' consultation. With 440 college students dat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14 items in study 1. In study 2,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400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two factor structures, upper classism attitude and downward classism attitude, were confirmed. With the higher level of test-retest reliability, the criterion validity was confirmed by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ge, subjective SES, the 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negative affects (depression and anxiety), hostility, and K-CAS. The incremental validity was also confirmed that K-CAS scores significantly accounted for 5% of total variation in scores of negative affects(depression and anxiety) in addition to the variables, such as age, subjective SES, house income, and the general belief in the just worl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developed and validated K-CAS in this study can be a useful tool for further research an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related to classism.

**Keywords** : Classism Attitude Scale, Scale Development, Validity, Reliability, College Students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9312)

\*Corresponding Author : Eunha Kim(Ajou Univ.)

Tel: +82-31-219-9787 email: eunkim@ajou.edu

Received November 19, 2018

Revised (1st December 14, 2018, 2nd January 2, 2019, 3rd January 30, 2019)

Accepted February 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 1. 서론

계층차별주의(classism)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개인의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의미한다[1]. 계층차별주의는 성이나 인종을 근거로 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달리,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계층(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에 근거한 차별로, 과거에는 주로 하류층(혹은 “가난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계층차별주의는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계층차별주의를 경험한 사람은 무력감, 질투, 박탈감 등을 느끼고, 심각한 경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계층차별주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가령, 구성원간의 위화감 및 분열 등을 조성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6].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계층차별주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낮은 취업률, 높은 고용 불안정, 그리고 점차 힘들어지는 사회계층간이동이 초래한 결과로[7],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흙수저’라 지각하면서 위축감, 무기력, 불안을 경험하고 있고, 동시에 ‘금수저’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를 반영하듯, 20-30대 청년 5명 중 4명이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힘들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9], 2016년 사살한 한 대학생의 유서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건 전두엽 색깔이 아니라 수저 색깔”이라는 표현을 적어 수저론과 관련한 비관적인 생각과 무기력감이 담겨 있었다[10].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계층차별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계층차별주의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11-13].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현상인 계층차별주의가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이와 관련된 개인의 계층차별주의적 태도 및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2,3,14]. 특히 심리학 문헌에서는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Social Class Worldview Model: SCWM)[3]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인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개인이 가진 객관적인 자본의 양보다는 이러한 자본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 내 공유된 인식과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여기서 자본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 사회 자본(social capital),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등을 의미하며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이러한 자본과 관련한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2]. 즉, 계층관련 차별주의적 태도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인적자본(성격, 성향, 지적 수준 및 외적 특징), 사회 자본(공유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 자본(문화예술적인 자원과 역량, 소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에 따르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그 대상이 어떤 사회적 계층이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는 하류층, 즉 낮은 사회적 계층(low social class)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예. ‘하류층 사람들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하류층 사람들의 의존적인 태도를 강화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인 행위(예. 아파트 경비원에게 아파트 입주민이 고압적인 태도나 업무 외의 잔심부름을 시킴)를 의미한다. 둘째, 상향 계층차별주의(upward classism)는 상류층 즉, 높은 사회적 계층(upper social class)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의미한다[3]. 상향 계층차별주의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혹은 상류층일수록 베풀고 성격이 좋다는 등의 일부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체로 상류층 사람들의 성취를 ‘부모 잘 만난 덕’ 혹은 비윤리적이거나 치사한 방법의 결과로 평가절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들이 이에 포함된다[3]. 셋째, 수평적 계층차별주의(lateral classism)는 자신이 속한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의미하며, 내면화된 계층차별주의(internalized classism)는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지 못함과 관련한 불안, 우울, 분노 및 좌절을 의미한다[2]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개인의 연령, 가정의 총 수입, 및 주관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계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2,15],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3,16]. 예를 들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층차별주의적 태도가 낮아지는

반면 주관적인 계층이 상류층이고 가정의 총 수입이 많을수록 하향 계층차별주의가 강하고, 주관적인 계층이 하류층이고 가정의 총 수입이 적을수록 상향 계층차별주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상향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많이 가질수록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에 가치를 덜 두고,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7].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지만, 소수의 관련 연구를 통해 특정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여러 부정적인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Aosved와 Long의 연구[18]에 따르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할수록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두 차원(개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 중 일반적인 믿음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개인적인 믿음은 ‘세상은 나 자신에게 정당하며 나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믿음은 ‘세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19].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인 믿음은 개인의 안정감, 심리적 안녕감 및 적극적인 대처 전략과 관련이 있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태도, 즉,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와 관련이 있는 부정적 요인이다[20]. 즉, Colbow 등의 연구[15]에서 재확인된 바와 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강할수록, 계층차별주의적 태도, 특히 하향 계층차별주의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높은 부정 정서와 낮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Colbow 등[15]은 부정 정서를 많이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 특히 자신의 수입이나 사회적 계층으로 인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불만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른 사회적 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역으로 계층차별주의는 적대감, 분노, 대인관계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2]. 예를 들어, 미국심리학회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Task Force 팀을 구성하고, 사회계층의 주관적 측면(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 계층)과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12]. 이 후, 미국에서는 계층차별주의와 관련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계층차별주의를 얼마나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척도와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먼저, 계층차별주의 경험과 관련한 척도로, Langhout, Rosselli와 Feinstein[21]은 대학생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경험하는 계층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계층차별주의 경험 척도(Classism Experiences Questionnaire-Academe; CEQ-A)를 개발하였다. CEQ-A는 하류층에 대해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농담을 들은 정도,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으로 인해 계층차별주의를 경험한 정도, 개인의 삶에서 사회계층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험을 한 정도를 측정한다. 계층차별주의 경험을 측정하는 또 다른 도구로 Thompson과 Subich[2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층차별주의 경험 척도(Experiences with Classism Scale; EWCS)를 개발하였다. EWCS는 계층차별주의와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예: “지난 해 얼마나 자주 당신의 사회 계층 때문에 선생님 혹은 교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과 시스템 안에서의 경험(예: “지난 해 얼마나 자주 친구, 룸메이트 혹은 학우가 좋은 물건을 사고, 휴가를 가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느꼈습니까?”)을 측정한다. EQA와 EWCS는 개인이 얼마나 자주 계층차별을 경험하는지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EQA 및 EWCS와 달리, 개인의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도 개발되었다. 먼저, Stevenson과 Medler[23]는 하류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의 탓이다”)을 측정하는 태도인 경제적 믿음 척도(Economic Belief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만을 측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Aosved, Long과 Voller[24]는 인내력 부족 도식 척도(Intolerant Schema Measure)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 역시 경제적 믿음 척도와 유사하게 하향 계층차별주의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Colbow 등[15]은 계층차별주의적 태도 프로파일(Classism Attitudinal Profile: CAP)이라는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SCWM)[2,3]을 토대로 계층차별주의의 네 가지 유형 중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와 상향 계층차별주의(upward classism)를 측정한다. Colbow 등[15]은 하향 계층차별주의와 상향 계층차별주의만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내면화된 계층차별주의의 경우 다른 세 유형의 계층차별주의와 관련성이 높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제외시켰고, 수평적 계층차별주의의 경우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계층이 무엇인지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 계층차별주의와 그 의미가 상충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즉, 이들은 내면화된 계층차별주의와 수평적 계층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하향 계층차별주의와 상향계층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층차별주의는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최근 관련한 측정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측정 도구들 중 일부는 개인의 계층차별주의 경험만을 측정하여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다른 척도들은 계층차별주의의 다양한 종류 중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가장 최근에 개발된 CAP는 이러한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지만, 인터뷰나 설문지를 통해 실제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살펴보지 않고 관련 선행 연구들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 문화권에 존재하는 특정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제도를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계층차별주의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화마다 공유하는 상류, 중류, 하류층에 대한 인식,

태도, 경제적 관념 및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는 문화권 마다 다를 수 있다[2-3, 22], 일례로, 미국의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치에 입각한 상류층의 기부 문화의 발달 등으로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에 있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이 덜하다[15, 28]. 즉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주의와 같이 계층차별주의 역시 특정 문화권에 존재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역사적 배경, 사회적 제도, 그리고 조직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를 고려한 측정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25].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에서 개발된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를 그대로 번안 및 타당화하기보다 한국 문화권 내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차별주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최근 금수저나 계룡남 등 계층과 관련된 신조어 등장하였고, 여러 대학생들의 계층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정신건강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적대감이나 분노 등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폭력적인 태도, 대인관계 문제 및 낮은 삶에 대한 만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잇달아 보고되어 왔다[7-9], 즉, 기존의 지역간, 성별간, 그리고 다문화 관련 다양한 차별적인 태도와 더불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 또한 개인 내 정신건강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 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예방 및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계층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양적 자료 및 관련 측정도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The Korean Version of Classism Attitude Scale: K-CA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높은 취업경쟁률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저계급론’, ‘삼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경험하며 분노, 무기력 및 우울감 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7,9]. 따라서 본 대학생용 한국판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의 개발은 향후 계층차별

주의 태도가 대학생들 개개인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집단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유형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의 실태와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The Korean Version of Classism Attitude Scale: K-CA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높은 취업경쟁률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수저계급론’, ‘삼포세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경험하며 분노, 무기력 및 우울감 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7,9]. 따라서, 본 대학생용 한국판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의 개발은 향후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대학생들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집단 내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 및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연구 1에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s Qualitative Method- Modified; CQR- M)[26]을 통해 실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의 속성을 파악한 결과 및 문헌분석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취합하여 K-CAS의 문항을 제작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CQR-M은 50명~150명 정도의 다수의 표본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모집단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어 양적 연구와 결합이 용이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26].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K-CAS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15, 27-30]를 통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계층(이하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부정 정서(우울, 불안), 적대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부정 정서를 예측하는데 있어 기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연령, 가정의 총수입,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외에 추가적으로 K-CAS가 설명하는 변량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서 K-CAS의 증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증분 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란 주어진 기준 변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새로운 독립변인의 추가가 그 설명 정도를 증가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31]. 마지막으로,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같은 편견 및 일반적인 비편적인 태도들이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정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30],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 변인들(예: 주관적 계층,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인식)의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 2. 연구 1

연구 1에서는 제 1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 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CQR-M으로 분석한 질적 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만들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1 방 법

#### 2.1.1 대학생 대상 계층차별주의태도 척도 문항 개발

##### 2.1.1.1 연구대상

연구 1에서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S대학의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연구 홍보문을 게시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설문지 소요 시간, 비밀 보장, 및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다고 안내하고 불편감을 느낄 경우 연락 할 수 있는 상담센터 및 연구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개방형 설문지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9세였으며, 성별은 남자 60명(45.8%), 여자 71명(54.2%)이었다. 학년은 1학년 23명(17.6%), 2학년 20명(15.3%) 3학년 34명(26%), 4학년 및 그 이상은 41명(31.3%)이었다. 재학 중인 대학 유형은 4년제가 124명(94.7%)이었고, 학교 소재는 서울 98명(74.8%), 경기도 19명(14.5%), 경상도 11명(8.4%), 강원, 충청 및 전라도 각 1명(1.5%)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 2.1.1.2 문항개발 절차 및 문항적절성 검증

실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과 관련된 차별주의적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CQR-M[26] 연구절차에 따라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에 대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묻는 개방형 설문지가 만들어졌고, 총 131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개방형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의 예는 “계층차별주의(classism)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술해주시고”, “하류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나보다 계층이 높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거나 생각하십니까?” 및 “나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거나 생각하십니까?” 등이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예시 대답의 예로는 “(계층차별주의란) 사회적 계층에 따른 편견과 무시를 하고, 우월감, 열등감 등의 심리상태를 가지며 이러한 감정상태에 따른 행위나 태도”, “(상류층은) 조금 폐쇄적이고 때론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위화감을 주는지 모른다”, “(중산층은) 특출한 점 없이 무난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류층은) 학력이 낮고 교양이 없으며 생계유지가 삶의 주 목적일 것 같다” 등이 있었다. 자료를 분석한 평정팀은 박사 3인과 석사 1인으로 구성되었다. 박사 3인은 상담관련 대학 교수이자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CQR-M 및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은 각자 반응을 읽고, 자료를 유목화하여 영역 및 개념 목록을 작성한 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전체 내용의 주요 영역을 설정하고 공통적인 개념을 묶어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모호한 경우는 최대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논의를 반복하였다. 분석을 통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에 4개 영역(지적·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내적 자본 및 물질적 자본)과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구체적으로, 지적·문화적 자본의 영역 내 범주에는 문화·예술적인 자원과 역량, 폭넓은 경험, 및 교육의 중요도 및 기회, 내적 자본의 영역에는 자기 관리, 성격 및 도덕성, 사회 자본 영역 내 범주에는 공유하는 네트워크, 관계의 질 및 폐쇄성, 기회의 유무, 제도의 오남용, 계층의 대물림, 그리고 물질적 자본의 범주에는 특정 지역, 경제적 여유, 불로 소득, 과시적 소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각 영역과 범주의 세부 항목은 하류층, 상류층, 중류층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류층과 상류층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답변들과 달리 중류층에 대한 답변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집단” 혹은 “평범하고 무난한 집단”으로 참여자 자신을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류층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태도로 보기가 어려운 답변들이 대다수였다. 이에, 본 척도 개발의 목적에 맞추어, 중산층의 특성을 기술한 내용들은 문항 개발 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역과 범주에 따라 코딩된 자료와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SCWM)[2.3]을 바탕으로 예비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문항개발 시, 각 문항이 계층차별주의적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35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발된 35개의 예비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3명의 상담심리학 박사 소지자이자 대학교원인 전문가들에게 1차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위원들은 5점 척도(1 = 전혀 적절하지 않다, 5 = 매우 적절하다)를 사용하여 문항의 적절성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문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정한 점수는 점수별로 가중치(1점=0; 2점 = .25; 3점 = .50, 4점 =.75, 5점 1.00)를 두어 계산되었고, 문항마다 가중치의 평균을 구하였다. 35개의 예비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 상 평정에서 최소 3.3이상으로 ‘적절하다’라고 평가되었으나, 그 중 가중치의 평균 점수가 .60 미만[32]인 5개의 문항들은(예: 상류층에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선택사항인 것 같다, 하위층 사람들은 술과 담배 등을 절제하지 못한다,) 제외되었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적 평정 내용을 반영하여 혼란을 주거나 문항 및 독해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추려진 30개의 예비 문항에 대해 2차 자문을 의뢰하였다. 2차

자문위원으로는 상담심리 박사 소지자이자 대학 교원인 전문가 3명을 비롯하여 일반 대학생 30명이 포함되었다. 전문가 집단 및 대학생 대상으로 측정된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Index: CVI) 결과, 각 문항의 가중치의 평균 점수는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 2.1.2 탐색적 요인분석

### 2.1.2.1 연구 대상 및 절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대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별 수강신청 및 수업 등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들에 연구 홍보문을 게시하였고, 총 450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방법 등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치와 이상치를 제외한 440명의 자료가 탐색적 요인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남녀 비율은 남자 210명(47.7%) 여자 230명(52.3%)이었고, 연령은 평균 22.51세( $SD=2.4$ )였다. 참여자들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56명(35.5%), 경기도 87명(19.8%), 강원도 18명(4.1%), 충청도 64명(14.5%), 경상도 77명(17.5%), 전라도 30명(6.8%), 제주도 5명(1.1%)이었다. 학교유형은 4년제 395명(89.8%), 2년제 20명(6.8%), 그리고 3년제 15명(3.4%)이었고, 학년은 1학년 59명(13.4%), 2학년 89명(20.2%), 3학년 116명(26.4%), 그리고 4학년 및 그 이상이 176명(40%)이었다. 또한 참여자의 가정 한 달 총수입은 300만원 미만 113명(25.6%), 300~750만원 미만 260명(59%), 750만원 이상 67명(15.2%)이었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계층은 상류층 35명(8.1%), 중류층 287명(65.2%), 하류층 118명(26.8%)이었다.

### 2.1.2.2 자료 분석

K-CA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1의 모든 자료 분석에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2.2 결 과

### 2.2.1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33]. 또한 문항 간 상관, 문항과 총점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하위 척도 내 문항 간 상관이 .30~.70을 벗어나는 문항 그리고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가 .20 이하인 12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34] 다음으로 남은 18개의 문항들을 가지고 요인분석의 기본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91, Barlett의 구형성 지표는  $\chi^2(153, N=440)=3974.17(p<.001)$ 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5]. 이에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36].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37] 스크리 도표[38], 요인구조의 해석 가능성, 요인 내 문항의 일관성 및 동질성, 그리고 요인 구조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2개의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를 2개로 고정하고 주축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고, 요인 부하량이 .40이하, 교차 부하량이 .30이상[39]을 기준으로 4문항(예. “상류층 사람들은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많다”, “하류층 사람들은 자각지심이 있다”, “하류층일수록 우울하다”)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14 문항, 2요인 구조의 누적 설명량은 63.051이었고, 모든 문항이 적절한 수준(.713~.858)의 요인 부하량을 보여 해당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추출된 2개의 요인은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1은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그리고 요인 2는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K-CAS는 최종적으로 14문항 2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기존의 계층차별, 성차별, 인종차별주의적 태도 관련 척도들의 평정방식과 동일하게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동의한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요인 1(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요인 2(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사람들에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 2.2.2 신뢰도 분석

K-CAS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89,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90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증가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Final Items of K-CAS

		factor 1	factor 2	$h^2$
1	Upper class people have built up wealth in unfair ways	.717	.061	.532
2	Upper class people think they are privileged and different from others	.803	-.006	.643
3	Upper class people have lots of information that are only shared within their group	.803	-.060	.633
4	Upper class people make their own circle	.799	-.009	.637
5	Upper class people disregard people who are in the lower class than them	.858	.037	.749
6	Upper class people live an affluent life in their parent's wealth without working hard.	.781	-.065	.598
7	Upper class people only use expensive or luxury brands's items	.744	.050	.568
8	Lower class people take for granted the other's help.	-.044	.811	.648
9	Lower class people are emotional.	.105	.788	.633
10	Lower class people are poor at anger management	.013	.834	.699
11	Lower class people tend to be less intelligent	.031	.817	.677
12	Lower class people are unsophisticated.	-.023	.821	.669
13	Lower class people only dream of a better life	.048	.713	.522
14	Lower class people are poor because they don't work hard.	-.060	.796	.621
Eigenvalue			3.688	
Explained Variance Per Factor		36.71	26.34	

## 3.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한 14개의 문항, 2요인

모형이 다른 대학생의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4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준거 및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1 방법

#### 3.1.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2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방법 등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받았다. 총 40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남자 184명(46%), 여자는 216명(54%)이고 연령은 평균 21.1세 ( $SD = 2.38$ )였다. 지역적으로 서울 196명(49%), 경기 72명(18%), 강원도 17명(4.3%), 충청도 34명(8.5%), 경상도 50명(12.5%), 전라도 27명(6.8%), 제주 3명(0.8%) 이었다. 학교유형은 4학년제 276명(69%), 2년제 109명(27.3%), 그리고 3년제 15명(3.8%)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152명(38%), 2학년 77명(19.3%), 3학년 75명(18.8%), 그리고 4학년 및 그 이상이 96명(24%)이었다. 또한 스스로 지각하는 계층에 대해 상류층 86명(21.5%), 중류층 238명(59.5%), 하류층 76명(19%)이라고 대답하였고, 가정 총 수입은 300만원 미만 94명(23.5%), 300-750만원 미만 239명(59.8%), 750만원 이상은 67명(16.8%)이었다. 이와 더불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 2에 참여한 400명 중 76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동일 검사가 실시되었다.

#### 3.1.2 측정도구

##### 3.1.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ucas, Alexander, Firestone와 Lebreton[40]이 개발하고 Lucas, Zhdanova와 Alexander[41]가 수정한 후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과 김지수[42]가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분배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예. “나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



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예. “일반적으로 나는 정당한 절차를 경험한다”)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예.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등 4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상류 혹은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고정관념 및 편견을 반영함을 고려하여, 개인적 믿음보다 일반적 믿음을 측정하는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집단주의와 높은 상관관 보였고[40] 한국판 척도는 이에 더하여 분배 및 절차 공정성에 대한 믿음 모두 우울 부적 상관관을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을 보임으로서 준거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신뢰도의 경우, Lucas 외[40]의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의 cronbach's  $\alpha$ 는 .91,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의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고, 김은하 외[42] 연구에서는 각각 .90과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86로 나타났고, 두 하위 척도를 합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90으로 나타났고.

### 3.1.2.2 대학상담센터용 심리증상평가 척도-단축형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부정 정서와 적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ocke 등[43]이 개발하고 김은하, 최태한, 권민혁과 장재원[4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대학상담센터용 심리증상평가척도-단축형(Counseling Center Assessment of Psychological Symptoms: CCAPS-34; Locke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지난 2주간 부정 정서(5문항), 알코올 사용문제(6문항), 적대감(5문항), 섭식문제(3문항), 학업효능감 문제(6문항), 및 사회불안(5문항) 등의 영역에서 경험했던 문제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각 하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29], 계층차별주의태도와 같은 소

위 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부정 정서(예. “나는 예전만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와 적대감(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을 한다”)을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한국판 척도의 경우, 축소형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s Check List-47-R: SCL-47-R)[45]의 우울과, 불안, 및 적대감 하위척도 및 대학생적응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46]의 학업 부적응 척도와 부정 정서 및 적대감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을 보고하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도의 경우, 김은하 등[44]에서 부정 정서의 cronbach's  $\alpha$ 는 .83, 적대감의 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3과 .78로 나타났고.

### 3.1.2.3 관련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총 수입은 한 달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1점), 150만원~300만원 미만(2점), 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3점), 45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4점), 600만원 이상~750만원 미만(5점), 75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6점), 900만원 이상(7점)으로 측정하였고, 주관적인 사회적 계층의 경우,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계층이 상, 중, 하 중 어느 계층 인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3.1.3 자료 분석

먼저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14개 문항, 2요인의 구성개념을 교차타당화하기 위해 AMO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 SRMR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 RMSEA와 SRMR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와 .08 사이는 양호한 정도, 그리고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로 해석한다[47]. 또한 K-CAS의 4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및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결 과

### 3.2.1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14개

문항, 2요인 모형의 구성개념을 교차 타당화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의 적합도 지수는  $\chi^2(76)=195.812(p<.001)$ , CFI=.950, TLI=.941, RMSEA=.063(.052-.074), SRMR=.043으로 나타났다 [34,47].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Fig 1과 같이 표준화된 계수 기준으로 .601~.83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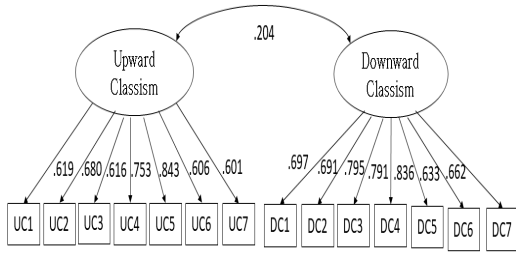


Fig.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K-CAS  
 Note. All the factor loading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또한, K-CAS의 하위 요인인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하향 계층 차별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8, p<.01$ ). 또한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척도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74, p<.001$ ),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척도 전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79, p<.001$ ).

### 3.2.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 3.2.2.1 검사-재검사 신뢰도

K-CAS의 척도 전체 내적 합치도는 .845,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851,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886으로 나타나 연구 1에서의 신뢰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4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전체는 .870,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881,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8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K-CAS가 적절한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3.2.2.2 준거 타당도

K-CAS의 준거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층차별주의 태도 관련 선행 연구[15]에서 계층차별주의태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변인들인 연령,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부정정서 및 적개심

과 K-CAS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은 K-CAS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 경우, 상류층과 하향 계층차별주의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하류층과 상향계층차별주의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K-CAS의 총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낮을수록 상향 계층차별주의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 정서와 적대감은 K-CAS의 총점,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및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s to test validation of K-CAS

	$r_{total}$	$r_{upward}$	$r_{downward}$
Age	.097	-.046	.183**
Subjective Class-Upper	.141**	.073	.141**
Subjective Class-Lower	-.044	.116*	-.040
GBJW	-.064	-.127*	.021
Negative Affect	.261**	.173**	.226**
Hostility	.281**	.139**	.286**
$r_{downward}$	.794**	.179**	-
$r_{upward}$	.740**	-	-

Note. Subjective Class-Upper = Dummy coded value with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1 = Upper Class, 0 = Middle Class)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Subjective Class-Lower = Dummy coded value with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1= Lower Class, 0=Middle Class), GBJW = General Belief In Just World \* $p<.05$ , \*\* $p<.01$ .

#### 3.2.2.3 증분 타당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에 대해서, 자신과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계층에 대한 인식 및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정당하다는 믿음 외에, 대학생 대상으로 개발된 K-CAS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정정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연령, 가정의 총 수입,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는 K-CAS로 측정된 계층차별주의 태도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1단계에서는 연령, 가정의

총수입, 주관적 계층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부정 정서의 약 6%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K-CAS가 추가된 모형이 부정 정서의 5%를 더 설명하며, 이 모형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ith Negative Affect as Dependent Variable

Variables Added		<i>E(SD)</i>	$\beta$	<i>t</i>	
Step 1	Age	-.022(.081)	-.014	-.269	
	Household Income	-.317(.127)	-.134	-2.495*	
	Subjective Class -Upper	1.160(.481)	.125	2.413*	
	Subjective Class -Lower	1.044(.538)	.108	1.942	
	GBJW	-.063(.024)	-.130	-2.632**	
	$R^2$			.060***	
	$\Delta R^2$			.060**	
Step 2	Age	-.048(.079)	-.030	-.611	
	Household Income	-.243(.125)	-.103	-1.942	
	Subjective Class -Upper	.801(.474)	1.688	1.688	
	Subjective Class -Lower	1.005(.524)	.104	1.918	
	GBJW	-.056(.023)	-.115	-2.348*	
	K-CAS	.079(.017)	.229	4.686***	
	$R^2$			.110***	
$\Delta R^2$			.050**		

Note. Subjective Class-Upper = Dummy coded value with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1 = Upper Class, 0 = Middle Class)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Subjective Class-Lower = Dummy coded value with middle class as reference level (1= Lower Class, 0 = Middle Class), GBJW = General Belief In Just World. \* $p < .05$ , \*\* $p < .01$ , \*\*\* $p < .001$ .

### 4. 논 의

본 연구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계층차별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층과 관련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심리적·신체적 안녕감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안되었다. 특히,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2], 한국사회의 경우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8명이며[48], 한국 사회가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지속성이 OECD 국가 중 가장 강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49].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내에서, 특히 불안정한 취업 환경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50, 51]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층차별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고 CQR-M 방식으로 이를 분석한 예비 질적 연구 결과 그리고 관련 문헌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합하여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 문항에 대한 문항 적합성, 기술통계치,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추려진 14개의 예비 문항들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문항, 2요인 구조의 적합성이 재확인되어 K-CAS의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K-CAS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및 연령,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및 부정 정서, 적대감과의 상관 분석을 통해 K-CAS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정 정서에 대해 연령, 가정의 총 수입, 주관적 계층,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설명하는 정도 외에 추가적으로 K-CAS가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한지 살펴봄으로써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CAS의 내적합치도 및 4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K-CAS는 총 14문항으로, 상류층에 대한 차별적 태도 요인인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 하류층에 대한 차별적 태도인 하향 계층차별주의의 2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인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상류층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부를 쌓았다’, ‘상류층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부모덕에 풍족한 삶을 산다’ 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요인 2인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는 ‘하류층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낮다’, ‘하류층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 등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과 요인 2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 $r = .179$ )과 기존의 관련 척도에서 총점이 아닌 하위요인의 점수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CAS를 사용할 시 총점 보다는 요인 1과 요인 2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 1과 요인 2 간의 상

관관계가 높지 않은 점은 Colbow 등[15]이 개발한 CAP 과도 유사한 결과이며, 신뢰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K-CAS가 .845~.886의 범위로, CAP의 .782~.848 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및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를 잘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2요인 구조는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SCWM) [2,3]에서 강조하는 계층차별주의의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인 상향 계층차별주의(upward classism)와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의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Colbow 등[15]이 개발한 CAP의 상향 계층차별주의(upward classism)와 하향 계층차별주의(downward classism)의 2요인 구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K-CAS와 CAP의 문항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부정부패를 많이 하며 폐쇄적이고 자신들만의 정보와 경험을 향유한다는 점 그리고 하류층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자기 조절 능력, 교양 혹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범문화적으로 공통적인 상류층 그리고 하류층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52,53].

하지만 K-CAS와 CAP의 문항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K-CAS와 CAP 모두 상류층의 자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항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K-CAS의 경우, “상류층 자녀들은 별 다른 노력이 없어도 풍족한 삶을 산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상류층의 자녀가 부모의 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부각된 반면, CAP에서는 “상류층의 자녀들은 문제아이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자녀의 문제적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위 상류층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한 반면에 해외에서는 상류층 자녀들이 하류층 자녀들에 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경제적인 부, 자원, 및 특권을 받지만[14] 타인과 더 많은 비교를 하고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을 숨기 고자 하는 경향이 높으며[54-56], 우울, 불안, 약물 사용, 섭식장애, 및 거짓말과 절도 등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57,58]. 즉, 해외에서는 상류층 자녀들이 보이는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이들을 “문제아”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배경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59]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K-CAS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부정 정서와 적대감이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의 총점 및 각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차별주의가 심리사회적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계층차별주의 관련 이론 [2, 3] 그리고 하향과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부정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Colbow 등[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관적 계층과 K-CAS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할수록 하향 차별주의 태도를 보이고,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상향 차별주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olbow 외[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신을 상류층으로 생각할수록 하향 차별주의 태도가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60]와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상류층 사람들은 하류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불평등한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아닌 개인적 결함에 귀인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15,61]. 이에 반해,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상향 차별주의 태도가 강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자신보다 더 좋은 스펙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비교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많이 경험[50,51]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권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차이가 클수록,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더 경험하게 되고[62],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편견, 고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63].

이와 더불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계층차별주의 태도 척도 총점 및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향 계층차별주의 태도와는 유의한 부정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류층 사람들이 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기회들을 모두 부정적인 방식으로 독식하며, 그들끼리만 서로 공유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사회경제적인 계층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7,

28].

한편, 연령과 전체 계층차별주의 및 상향 계층차별주의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연령과 하향 계층차별주의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olbow 외[15]의 연령과 상향 계층차별주의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낮아진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참여자들의 연령분포의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 Colbow 외[15] 연구 참여자들은 연령대가 20-50대 사이로 대다수가 이미 대학 졸업자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반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대 초중반의 대학 재학생들로 연령의 분포가 협소하여 연령과 하향 계층차별주의와 태도의 상관에서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K-CAS의 증분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K-CAS 척도가 연령, 가정의 총 수입, 주관적 계층, 및 적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외에 부정 정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령, 교육수준, 가정 총 수입, 결혼 관계 및 주관적인 계층 등의 변인들 외에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추가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변인임을 보여준 Colbow 외[15]의 증분타당도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문적, 임상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수저계급론’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5]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계층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탐색하고 이를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K-CAS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개인이 자신보다 상류 혹은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계층차별주의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인 변인들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도록 돕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상담 개입 차원에서 활용방안으로서, K-CAS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계층차별주의 태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부정 정서, 적대감 혹은 대인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더하여, 아직까지 계층차별주의와 관련된 편견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은 거의 전

무한 상황인데, 향후 K-CAS의 문항들을 계층관련 차별적 태도의 예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을 통해, 계층차별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차별적 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행동의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CAS는 부정적인 상황 및 하향 계층차별주의 태도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3],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연령에 증가해도 계층차별주의 태도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20대 초중반으로 한정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연령대를 넓혀 연령에 따라 계층차별주의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CAS가 다른 유형의 차별주의 태도(예. 성차별, 인종차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계층 차별주의 태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성 혹은 인종 집단에 대해서도 강한 차별주의 태도를 보인다는 해외 연구의 결과[18]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K-CAS는 자기보고식 척도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K-CAS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계층차별주의 태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성차별주의, 동성애에 대한 차별주의와 같은 태도를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64]를 사용하여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K-CAS는 대학생의 경험과 관점만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K-CAS가 연령 및 교육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예: 고졸 취업자, 청소년, 중장년 노동자)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고정관념과 더불어, 계층의 대물림, 그리고 계층이 자신 및 타인을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검증 및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 5. 결 론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계층차별적 고정관념 및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계층 세계관 모델과 예비 질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2요인 구조,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준거 및 증분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하기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계층차별주의 관련 연구와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의의를 갖는다.

## References

- [1] R. Clark, N. B. Anderson, V. R. Clark, D. R. Williams.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Vol54, pp. 805-816, 1999.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4.10.805>
- [2] W. M. Liu. "Social class and classism in the helping professions: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SAGE, 2011.  
DOI: <http://dx.doi.org/10.4135/9781452230504>
- [3] W. M. Liu, G. Soleck, J. Hopps, K. Dunston, & T. Jr. Pickett.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ing social class in counseling: The social class worldview model and modern classism theor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32, pp. 95-122, 2004.
- [4] A. M. W. Simmons, A. Koster, D. A. I. Groffen, & H. Bosma. "Perceived classism and its relation with socioeconomic status, health, health behaviors and perceived inferiority: The Dutch Longitudinal Internet Studies for the Social Sciences (LISS) panel",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Vol6, pp. 433-440, 2017.  
DOI: <http://dx.doi.org/10.1007/s00038-016-0880-2>
- [5] S. W. Byun. "Revisiting the social class: Focusing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4, No.1 pp. 101-130, 2018.  
DOI: <http://dx.doi.org/10.20406/kjcs.2018.2.24.1.101>
- [6] P. H. Collins. "Intersectionality's definitional dilemma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41, pp. 1-20, 2015.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soc-073014-112142>
- [7] B. G. Kim. "The neologisms that college students frequently use this year are gold spoon and hellchosun", Hankyung, Dec. 2015.
- [8] E. Kim, S. K.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in a just world for self and depression: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 1 pp. 1-22, 2017.  
DOI: <http://dx.doi.org/10.15703/kjc.18.1.201702.1>
- [9] C. J. Kim. Only born in gold-spoon makes individual happy? Depressed South Korea. *Hankookilbo*, Oct, 11, 2013.
- [10] M. W. Lee.. Children who are forced out into the battlefield. *Sisapress*, Feb, 18, 2015.
- [11] N. E. Adler E. S. Epel G. Castellazzo, J. R. Ickovics.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Vol19, pp. 586 - 592, 2000.  
DOI: <http://dx.doi.org/10.1037/0278-6133.19.6.586>
- [1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Socioeconomic Status.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Socioeconomic Statu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 [13] D. L. Blustein, A. P. Chaves, M. A. Diemer, L. A. Gallagher, K. G. Marshal, S. Sirin.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pp. 311-323,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9.3.311>
- [14] D. Cui, L. Wu, J. Zhang, J. "Ambivalent attitude of young people in China toward rich kids: Evidence from behavioral indi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43, pp. 1255-1264, 2015.  
DOI: <https://doi.org/10.2224/sbp.2015.43.8.1255>
- [15] A. J. Colbow, E. C. Cannella, W. Vispoel, C.A. Morris, C. Cederberg, M. Conrad, A. J. Rice, W. M. Liu. "Development of the classism attitudinal profile (CA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3, pp. 571-585, 2016.  
DOI: <http://dx.doi.org/10.1037/cou0000169>
- [16] W. M. Liu.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Developing a social class worldview model. The intera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counseling psychology*. In D. B. Pope-Davis and H. L. K. Coleman (Eds.), "The intersection of race, class, and gender in counseling psychology" pp. 127-17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1.  
DOI: <http://dx.doi.org/10.4135/9781452231846>
- [17] B. A. Allan, P. O. Garriott, & C. N. Keene. "Outcomes of social class and classism in first- and continuing-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3 No.4, pp. 487-496, 2016.  
DOI: <http://dx.doi.org/10.1037/cou0000160>
- [18] A. C. Aosved, & P. J. Long. "Co-occurrence of rape myth acceptance, sexism, racism, homophobia, ageism, classism, and religious intolerance", *Sex Roles*, Vol55, pp. 481-492,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1199-006-9101-4>
- [19] I. M. Lipkus, C. Dalbert, I. C. Siegler.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2, No.7, pp. 666-677, 1996.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96227002>
- [20] R. M. Sutton & K. M. Douglas. "Justice for all, or just

-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9, No.3, pp. 637-645, 2005.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5.02.010>
- [21] R. D. Langout, F. Rossell, J. Feinstein. “Assessing classism in academic setting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Vol30, 145-184, 2007.  
DOI: <http://dx.doi.org/10.1353/rhe.2006.0073>
- [22] M. N. Thompson, L. M. Subich. “Development and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s with Classism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21, pp. 139-158, 2013.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12450494>
- [23] M. R. Stevenson, B. R. Medler. “Is homophobia a weapon of sexism?”, *The Journal of Men’s Studies*, Vol4, No.1, pp. 1-8, 1995.  
DOI: <http://dx.doi.org/10.1177/106082659500400101>
- [24] A. C. Aosved, P. J. Long, E. K. Voller. “Measuring sexism, racism, sexual prejudice, ageism, classism, and religious intolerance: The intolerant schema measur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9, No.10, pp. 2321-2354,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559-1816.2009.00528.x>
- [25] Y. Kim, K. Jung. “Korean version of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Vol42, pp. 1-158, 1999.
- [26] P. T. Spangler, J. Liu, C. E. Hill, C. 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 - 28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DOI: <http://dx.doi.org/10.1080/14733145.2012.705113>
- [27] S. K. McCoy, B. Major.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3, pp. 341-3512, 2007.  
DOI: <http://dx.doi.org/10.1016/j.jesp.2006.04.009>
- [28] W. Ng, E. Diener.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7, pp. 326-338, 2014.  
DOI: <http://dx.doi.org/10.1037/cou0000169>
- [29] D. DeSteno, N. Dasgupta, M. Y. Bartlett, A. Caidric. “Prejudice from thin air: The effect of emotion on automatic intergroup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Vol15, pp. 319-324, 2004.  
DOI: <http://dx.doi.org/10.1016/j.eatbeh.2012.03.004>
- [30] V. Lorant, D. Deliège, W. Eaton, A. Robert, P. Philippot, M. Anseau.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57, pp. 98-112, 2003.  
DOI: <http://dx.doi.org/10.1093/aje/kwfl82>
- [31] S. N. Haynes, H. C. Lench. “Incremental validity of new clinical assessment measures”, *Psychological Assessment*, Vol15, pp. 456-466, 2003.  
DOI: <http://dx.doi.org/10.1037/1040-3590.15.4.456>
- [32] S. Sparks, T. Lien-Gieschen. “Modification of the diagnostic content validity model”, *Nursing Diagnosis*, Vol5, pp. 31-35, 1994.  
DOI: <http://dx.doi.org/10.1111/j.1744-618X.1994.tb00365.x>
- [33] P. J. Curran, S. G. West, J. F.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pp. 16-29, 1996.  
DOI: <http://dx.doi.org/10.1037/1082-989X.1.1.16>
- [34]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2016.
- [35] B. G. Tabachnick, L. S. Fidell, S. J. Osterlind.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CA: Pearson, 2001.
- [36] J. Kim, M. Kim, S. Hong. “Writing Manuscript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Communicationbooks, Seoul, 2009.
- [37] H. F. Kaiser.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20, pp. 141-151, 1960.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6002000116>
- [38] R. B. Cattell.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1, pp. 629-637, 1966.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06mbr0102\\_10](http://dx.doi.org/10.1207/s15327906mbr0102_10)
- [39] M. A. Pett, N. R. Lackey, J. J. Sullivan.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SAGE: Thousand Oaks, 2003.  
DOI: <http://dx.doi.org/10.4135/9781412984898>
- [40] T. Lucas, S. Alexander, I. Firestone, J. M. Lebreton. “Just world beliefs, perceived stress, and health behavior: The impact of a procedurally just world”, *Psychological Health*, Vol23, pp. 849-865, 2008.  
DOI: <http://dx.doi.org/10.1080/08870440701456020>
- [41] T. Lucas, L. Zhdanova, S. Alexander.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Vol32, pp. 14-25, 2011.  
DOI: <http://dx.doi.org/10.1027/1614-0001/a000032>
- [42] E. Kim, D. Kim, H. Park, S. Kim, J. K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9, No.3, pp. 689-710, 2017.  
DOI: <http://dx.doi.org/10.23844/kjcp.2017.08.29.3.689>
- [43] B. D. Locke, J. Soet Buzolitz, P-W. Lei, J. F. Boswell, A. A. McAleavey, T. D. Sevig, J. D. Dowis, J. A. Hayes, J. A. “Development of the Counseling Center Assessment of Psychological Symptoms-62 (CCAPS-62)”,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8, No.1, pp. 97-109, 2011.  
DOI: <http://dx.doi.org/10.1037/a0021282>
- [44] E. Kim, T. Choi, M. Kwon, J. Jang.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unseling center assessment of psychological symptom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8, No.2, pp. 21-39, 2017.  
DOI: <http://dx.doi.org/10.15703/kjc.18.2.201704.21>
- [45] Lee, H. K. Psychological Maturation of High School Graduates. *Cultural Sciences*, Vol56, 145-164, 1986.
- [46] R. W. Baker, B. Siryk.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3, pp. 31-38,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3.1.31>

[47] L.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pp. 1 - 55, 1999.  
DOI: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48] MBC. "81%, of South Korean don't believe a rag to riches story" Aug, 28, 2015.

[49]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social/broken-elevator-how-to-promote-social-mobility-9789264301085-en.htm>, June 15, 2018.

[50]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between career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2, pp. 449-467, 2014.

[51] M. Lee, H. Sung, E. Kim, S. Ji, S. Ahn. "The effect of intolerance to uncertainty on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volition and work hop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3, pp. 141-159, 2016.

[52] S. E. Johnson, J. A. Richeson, D. Finkel. "Middle class and marginal? Socioeconomic status, stigma, and self-regulation at the Elite Univer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 pp. 838-852, 2011.  
DOI: <http://dx.doi.org/10.1037/a0021956>

[53] V. Thomas, M. Azmitia. "Does class matter? The centrality and meaning of social class identity in emerging adulthood",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Vol14, pp. 195-213, 2014.  
DOI: <http://dx.doi.org/10.1080/15283488.2014.921171>

[54] S. T. Fiske. "Interpersonal stratification: Status, power, and subordination", John Wiley & Sons, 2010.

[55] E. L. Lyman, S. S. Luthar. "Further evidence on the costs of privilege: Perfectionism in high-achieving youth at socioeconomic extreme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51, No.9, pp. 913-930, 2014.  
DOI: <http://dx.doi.org/10.1002/pits.21791>

[56] F. J. Ninivaggi. "*Envy theory: Perspectives on the psychology of envy*",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0.

[57] S. S. Luthar, S. H. Barkin, E. J. Crossman. "I can, therefore I must: Fragility in the upper-middle class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25, No.4, pp. 1529-1549, 2013.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13000758>

[58] R. E. Patterson, K. T. Wang, R. B. Slaney.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relational health in women with eating disturbances", *Eating Behaviors*, Vol13, No.3, pp. 226-232, 2012.  
DOI: <http://dx.doi.org/10.1016/j.eatbeh.2012.03.004>

[59] H. H. Youn, S. J. Kim. "An empirical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1, pp. 49-67, 2009.

[60] E. E. Jones, V. A. Harris.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 pp.

1-24, 1967.  
DOI: [http://dx.doi.org/10.1016/0022-1031\(67\)90034-0](http://dx.doi.org/10.1016/0022-1031(67)90034-0)

[61] B. Reichle, A. Schneider, L. Montada. How do observers of victimization preserve their belief in a just world cognitively or actionally?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In L. Montada & M. J. Lerner (Eds.), "*Responses to victimizations and belief in a just world*" pp. 55-64 New York, NY, US: Plenum Press, 1998.  
DOI: <http://dx.doi.org/10.1007/978-1-4757-6418-5>

[62] R. G. Wilkinson, K. E. Pickett. "The problem of relative deprivation: why some societies do better than oth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65, pp. 1965-1978, 2007.  
DOI: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07.05.041>

[63] T. Greitemeyer, C. Sagioglou. "Increasing wealth inequality may increase interpersonal hos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relative depriv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57, pp. 766-776, 2017.  
DOI: <http://dx.doi.org/10.1080/00224545.2017.1288078>

[64] A. G. Greenwald, D. E. McGhee, J. L. K. Schwartz.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pp. 1464-1480,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4.6.1464>

신 윤 정(Yun-Jeong Shin)

[정회원]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상담심리전공 (석사)
- 2010년 7월 : Purdue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Ph.D.)
- 2010년 8월 ~ 2011년 7월 : Arkansas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진로발달 및 상담, 긍정심리, 다문화상담, 차별

김 은 하(Eunha Kim)

[정회원]



- 2002년 5월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rriage and Family Therapy (Master Degree)
- 2006년 8월 : Ohio State University, Psychology (Ph.D.)
- 2009년 8월 ~ 2013년 8월 : Adler School of Psychology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상담, 아德勒 심리학 이론, 화병, 차별



이 은 설(Eun Sul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 (문학석사)
- 2014년 8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unseling Psychology (Ph.D.)
- 2017년 3월 ~ 현재 :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상담심리학, 인지행동치료, 진로 상담, 다문화상담, 차별